

긴 우울이 드리운 봄날 『여성문학연구』 52호를 출간하며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버린 날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강의도, 회의도, 학술대회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다. 마스크를 쓴 얼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렇다 마스크 속 표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까지 멀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한 오랜 고민까지 잊히는 것은 아닌지 문득 커져가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일상은 지속되고 있다. 1년이 넘게 계속되는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혼자 지내는 삶에 적응해 가며 우리의 우울도 깊어가고 있다. 실체가 없는 우울은 아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노동 현장에서 여성이 먼저 소외된 경험을 우리는 오랫동안 몸으로 겪고 눈으로 봐 왔으니 말이다. 이 긴 비대면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더 위협으로 다가올 것인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다시 소외될 것인지 예상되는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변함없는 꽃소식을 들려주는 봄날을 긴 우울의 시간으로 맞이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여성문학연구』 52호의 특집 주제 〈일하는 몸들의 세계—서비스/돌봄/노동의 젠더 정치〉는 시의적절했다. 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데 힘써 온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저력이 잘 드러난 세 편의 논문들로 52호 특집이 꾸려졌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이번 특집 원고는 지난 2월 5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학연구소와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 중 일부로 구성되었다. 최근 여성 소설에서 ‘서비스/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젠더적 사유와 포스트휴먼의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예민하게 드러내는 소설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본 세 편의 특집 논문들은 2021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새로운 사유의 자리와 고민해 볼 문제들을 적절히 짚어주고 있다. 최근 여성 소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독서의 시간이 될 것임을 자부한다.

허윤의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은 비장애중심주의를 전유하여 능력주의를 규범으로 삼은 사회를 재현한 김보영의

소설을 통해 장애-비장애, 여성-남성, 퀴어-이성애자 등의 이분법적 질서를 해체하고 진보의 선형적 시간관을 비틀어냄으로써 최근의 SF 소설이 인간성을 탈신화하는 포스트휴먼의 상상력을 보여줌을 분석해 낸다.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도 오늘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류진희의 「초국적 서비스로서 걸 그룹 노동과 여성 서사」는 K-POP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각광받는 한류 문화 속에서 역사적 결절마다 초국적 서비스 노동을 수행해 온 걸 그룹의 계보와 그 재현을 다루는 한편, 걸 그룹에 대한 여성 서사를 보여준 최근작 조우리의 『ラスト 러브』와 한정현의 「소녀 연예인 이보나」를 중심으로 두 작품 모두 여성들이 수행해온 초국적 서비스 노동을 말하면서도 섹슈얼리티적인 측면을 소거하는 선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이 여성을 재현의 대상으로 할 때 성적 대상으로서의 측면을 말하지 않는 이 소설들의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이 될 거라는 말을 덧붙여 본다.

김미정의 「노동-자본의 피비우스 띠와 2010년대 후반 한국소설의 일·노동」은 김혜진, 장류진, 김세희, 조해진의 최근 소설을 중심으로 2010년대 후반 노동-자본의 조건이 서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시스템에 인간이 점점 더 부드럽게 공모되어 가면서 노동-자본의 관계가 단순한 적대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을 보인다는 사실에 착목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노동을 문제 설정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제안한다. 노동은 현실 속 시민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계와 세계에 대한 상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오늘의 소설이 보여주는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관통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성문학연구』 52호에는 특집 논문 세 편을 포함해 총 아홉 편의 논문이 실렸다. 여섯 편의 일반 논문도 고전문학, 현대소설, 영화,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흥미롭고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지닌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닌 다양한 전공 영역의 논문들과 다양한 세대의 연구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여성문학 연구의 밝은 미래를 전망케 한다.

엄진주의 『『구운몽』에 나타난 여성 우정의 양상과 그 의미』는 『구운몽』을 양소유 중심의 서사로 읽는 기존의 독법에서 벗어나 『구운몽』 속 일부다처제를 남성 중심의 질서를 넘어서 여성들의 우정을 이어나가기 위한 헤테로토피아로 읽으면서 여성들끼리의 우정을 위해 양소유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양상으로 해석한다. 여성들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 『구운몽』을 다시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논문이다.

정인혁의 「아브젝트 예술로서의 〈변강쇠가〉 연구」는 〈변강쇠가〉를 아브젝트와 아브젝시옹을 통해 성, 특히 여성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아브젝트 예술로 새롭게 읽어 보고자 한 시도이다. 특히 〈변강쇠가〉의 ‘기물타령’과 웅녀의 사라짐이라는 문제를 아브젝트 예술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했다.

박지영의 「좌절된 동성 연대와 모성의 소거」는 1960~70년대 한국문학 장에서 오이디푸스 서사 구조를 택하고 있는 정하연의 「환상살인」과 정현웅의 「오이디푸스의 초상」을 통해 당대 남성 중심의 가족로망스 서사에서 아들인 주체가 훼손된 부권의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하기 위해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소거시키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양상을 프로이트의 남근 중심 동성 연대 가족로망스의 번역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같은 시기 오정희와 박완서의 소설이 이 가족로망스를 넘어 새로운 모녀의 연대가 가능한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있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다.

이지은의 「가부장제 민족주의의 분열증과 여성 생애사 쓰기의 가능성」은 조정래의 「황토」를 대상으로 가부장제 민족주의가 비-순혈적 존재를 배제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점례의 글쓰기를 통해 여성의 생애사 쓰기에 잠재된 힘을 확인함으로써 도래할 여성의 언어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 연구이다.

정예인의 「역사영화와 한국형 멜로드라마의 (비)정치적 야합」은 〈오래된 정원〉(2007)과 〈택시운전사〉(2017)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5·18 영화의 대문자 남성 중심의 역사(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2000년대 이후 5·18 영화들은 국가폭력의 사건을 한국형 멜로드라마를 경유해 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여성이 타자화되어 과잉 재현되거나 소거되는 방식으로 대문자 남성 중심의 역사(관)를 보좌했음을 지적하며, 여성 인물의 재현에 주목해 폭력적인 사건의 기억을 나누어 갖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권명아의 「성폭력 부정주의의 정동적 힘과 대안적 정동 생성의 ‘쓰기」는 ‘진보정치 집단’ 출신의 광역 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담론 공간의 논의를 비판하고, 『김지은입니다』를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부정주의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조직되는지 공개적으로 증언한 정치적 텍스트로 해석하고자 한 논쟁적인 연구이다. 민주화 세대의 지배적 정동이 성폭력을 산출하는 조직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재생산하는지를 밝히고, 진보 집단 출신 정치인이 중심이 된 광역 단체의 노동착취 구조가 신분제에 가까운 노예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집단이 ‘노동’에 대한 분열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진보 집단의 정파주의와 민주화 세대의 정동을 한국사회를 극단적인 진영 대립으로 몰고 가는 주요 원인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대안 정동 정치를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호에도 우수석사논문 한 편이 추천되어 소개된다. 강도희의 「1980년대 아동 생활글 연구—이오덕의 글쓰기 교육을 중심으로」이다. 근현대 한국문학의 장을 구성해왔던 아동의 글을 계보화하고, 아동이라는 독특한 글쓰기 주체의 창조력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던 1980년대의 ‘아동 생활글’ 담론에 주목함으로써 글쓰기 주체로서 아동이 담론 속에서 어떻게 표상되는지, 그리고 그 정치적 힘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일독을 권한다. 학문후속세대의 발굴은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젊은 연구자들의 뛰어난 연구 성과가 쏟아져서 우리 모두를 학문적으로 자극하는 날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뜨거운 열정을 지닌 젊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감히 말해 본다.

이번 호 서평으로는 미국 페미니즘 SF를 대표하는 작가 조애나 러스의 비평집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에 대해 SF 장르와 여성의 글쓰기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검토한 강은교의 「여자는 무엇을 쓸 수 있는가」를 실었다. 미국에서 ‘페미니즘 SF’가 하나의 하위 장르로 형성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조애나 러스의 비평집에 대한 번역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강은교의 서평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에서 SF소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쓰이고 읽히며 그 사회적 함의가 높히 평가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책을 읽

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란다.

한국여성문학학회 임원진이 새롭게 꾸려지면서 기획 논문은 이번 호에서는 쉬어간다. 여성문학 연구자들을 지적으로 자극하는 의미 있는 기획이 이어지기를, 그래서 다음 호에서는 더 풍성한 읽을거리로 회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상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고 있지만 어떤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현실에 대한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은 더욱 예각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간사를 쓰고 있을 즈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2차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과 석 달 전 일본국의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한 1차 판결의 결과가 뒤집히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이 우리 재판부에서 나온 것이다. 한 걸음 내디뎠다 싶으면 다시 한 걸음 물러서게 하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한 걸음도 쉬운 걸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갈 것이고 여성문학 연구자들의 치열한 연구도 계속될 것이다. 우울한 봄의 기운을 뚫고 다시 희망을 길어 올리는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다짐해 본다.

이경수(편집위원장)